

친환경株 이어 테마 ETF도 줍줍... 서학개미, '바이든 bu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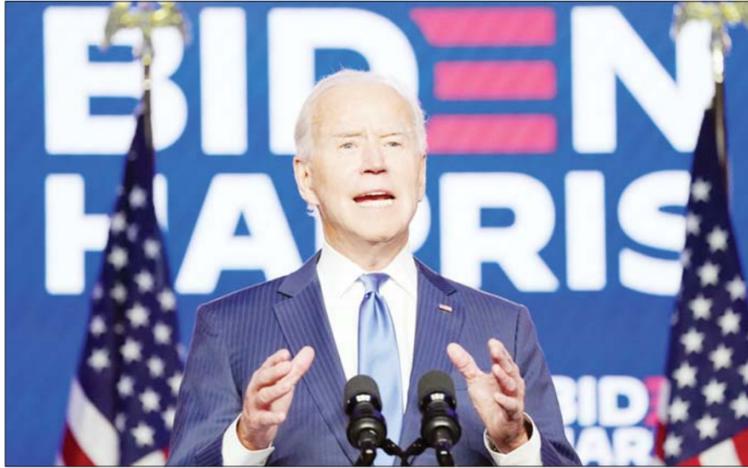
관련 기업 순매수 상위종목 등장
테슬라 등 친환경 수혜주 꼽혀
미국주식 순매수금 1위 올라

미국 대선 불확실성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서학개미'의 선택도 조 바이든이었다. 지난달 미국 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바이든 수혜주로 꼽히는 친환경주부터 테마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이름을 올렸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미국 주식 보관 잔액은 28조1269억원(251억9659만달러)에서 10월 29조5199억원(264억4449만달러)로 5%가량 증가했다.

반면 미국 주식 순매수 금액은 지난 9월 14조2833억원(127억9984만달러)에서 10월 8조1705억원(73억2193만달러)로 42.8%가량 거래량이 급감했다. 미 대선 불확실성에 서학개미가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고, 주식 비중을 줄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 릴레이에 접어들자 서학개미는 바이든에 베팅했다. 주식 비중을 줄였음에도 바이



지난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11·3 대선 개표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든의 공약에 따라 친환경주부터 관련 테마 ETF들이 순매수 금액 기준 상위 종목에 대거 등장했다. 시장은 이미 바이든의 승리를 예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앞서 바이든은 100% 청정에너지 경제 실현과 오는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위해 환경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또 글로벌 기후 대응을 위해 2021년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해 국제협력에

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목표로 한다. 전기차업종을 비롯한 친환경주가 바이든 수혜주로 꼽혔다.

서학개미의 미국주식 순매수 결제금액 1위 역시 '테슬라' (2558억528만원)였으며, 5위는 중국 전기차 업체인 '니오' (387억2608만원)였다. 이외에도 사기 논란에 휩싸였던 수소·전기 트럭 업체 '니콜라' (259억7445만원), 전기 배달 트럭과 배달용 드론을 만드는 업체

<10월 美주식 순매수 결제금액 상위10>

순위	종목명	순매수결제액
1	테슬라	2559억원
2	애플	1566억원
3	아마존	743억원
4	INVSC QQQ S1	451억원
5	니오	387억원
6	AT&T	383억원
7	ARK Innovation ETF	374억원
8	SPDR S&P 500 ETF	356억원
9	퀄컴	342억원
10	iShare S&P Global Clean Energy Index Fund 282	282억원

/예탁결제원

'워크호스' (74억4444만원) 등이 매수 상위 종목에 등장했다.

태양광 에너지 관리 솔루션 제공업체인 '엔페이스 에너지' (Enphase Energy), 주태양 태양광 업체 '선런' (Sunrun), 녹색수소를 만드는 친환경 에너지 업체 '넥스트라 에너지' (Nextera Energy) 등도 순매수 결제금액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들 기업의 경우 지난 10월 들어 새롭게 순매수 상위 종목에 등장했다.

또 친환경 관련 테마 ETF도 적극적으로 매수했다. 10월 한 달간 테슬라 등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ARK자산운용의 '아크 이노베이션 ETF' (ARK Innovation ETF)를 374억2551만달러 순매수해 5위를 기록했다. 지난 9월 순매수 결제금액(122억5133만원)과 비교했을 때 3배가 넘는 수치다.

신재생 에너지 ETF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아이셰어즈 S&P 글로벌 클린 에너지 인덱스 펀드' (iShares S&P Global Clean Energy Index Fund)도 282억4039만달러를 순매수해 10위에 올랐다. 이 ETF도 지난달 새롭게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는데, 미국 외에도 홍콩, 뉴질랜드, 스페인,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최재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대선 결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증시는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타났다"며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에 베팅한 글로벌 증시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수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2면 '상장사 성적'서 계속

대기업에 CVC '제한적 허용' 속도... '제2벤처붐' 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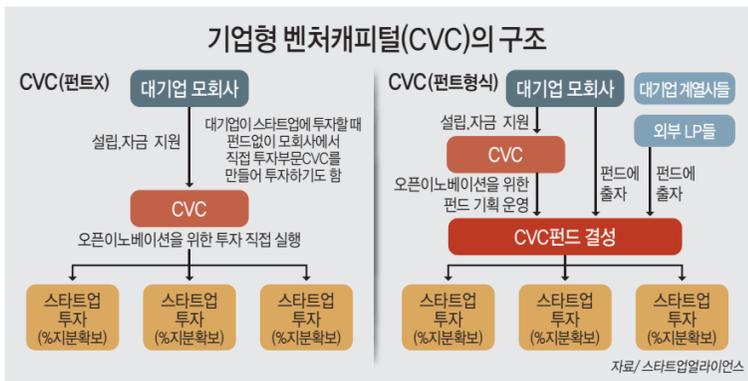
<기업형 벤처캐피탈>

윤관석 의원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내 기업 투자 활성화 제고"
자금 확보에 스타트업 "긍정"
일각선 문어발식 확장 우려도

여당이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제한적 소유를 허용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스타트업에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부위원장 윤관석 의원은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인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벤처투자회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윤 위원장은 개정안에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



자료/스타트업얼라이언스

사) 또는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형태의 벤처캐피탈을 보유해 벤처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자금고화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및 무분별한 기업 팽창을 방지하고 금융사고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오픈서베이는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0'을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올해 '제2벤처붐' 분위기가 7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68점, 지난해 73점으로 상승세를 타던 분위기에서 주춤한 수치다. 특히 창업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길 원하는 문제로 '기반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를 꼽은 만큼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시

타트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 없이는 스타트업이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시 보릿고개를 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정도 성장한 스타트업들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큰 자본이 필요한데 현재는 해외 벤처투자에 의지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질 시 우리 경제에도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벌 대기업의 투자 몰아주기와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의 입맛에 맞는 기업들만 투자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화학, 소프트웨어 등
외인 움직임 주시해야"

김종원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강제적 경제 봉쇄가 없었고 제조업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 반등이 빠르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지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실적 전망 호전은 한국의 수출 개선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수출 회복은 3분기 한국 경제 성장을 반등을 견인했으며 4분기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주가수익비율(PER) 지표보다는 실적 기대감에 주목하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자산 매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 이유로 지목된다.

그는 투자전략 관점에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종원 투자전략팀장은 "코로나 사태로 연 초 이후 주요국 실적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됐지만 코스피 기업 실적 전망은 오히려 상승했다"며 "코스피 기업의 이익수정비율 또한 2017년 7월 이후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실적 개선 모멘텀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4분기 실적개선 기대가 높은 업종에 관심을 가지라는 조언이다. 자동차, 철강, 화학, IT가전 등이 해당 업종으로 지목된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개인이 주도했던 시장이 외국인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외국인의 증시 방향성 결정력이 확대된 시점에서 그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화학, 소프트웨어, 건강관리, IT가전, IT하드웨어, 기계, 운송, 증권, 디스플레이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송태화 기자 avin@

"2025년 취급액, 모바일 7조 등 25조 목표"

>> 1면 'GS리테일-홈쇼핑'서 계속

양사의 멤버십 회원을 기준으로 GS리테일은 1400만명, GS홈쇼핑은 1800만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중복 고객을 제외하더라도 약 2600만명으로 고객기반을 확보한 셈이다. 또한, 패션과 리빙, 건강 카테고리 외 강한 홈쇼핑과 신선식품에 강점을 가진 편의점, 슈퍼마켓 사업은 상호 보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합병 작업은 그동안 협업과 테스트 사업을 통해 시너지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이루어졌다. GS25 점포 판매 와인인 GS홈쇼핑 모바일앱에서 주문을 받거나, GS리테일 콜드체인망을 활용하여 GS홈쇼핑의 식품류를 당일 배송하고, 공동 기획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온·오프 커머스 테크 리더 비전 설정
합병법인 GS리테일은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커머스 플랫폼'을 목표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합하고, 로얄고객 확보 및 상품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양사가 지닌 IT인프라와 데이터 역량의 결합을 통한 '커머스 테크 리더'를 실현하고, 물류 인프라와 배송 노하우의 결합으로 종합 풀필먼트 사업으로 진화시킬 예정이다.

이 같은 통합 전략의 실행을 통해 2025년 기준 취급액 25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2020년 기준 연간 취급액 예상치인 15조원에서 연 평균 10% 이상 성장하는 그림이다. 특히,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채널 통합에 집중

하여 현재 2.8조원 규모인 모바일 커머스 채널의 취급액을 7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GS리테일 허연수 부회장과 GS홈쇼핑 김호성 사장은 이사회 결의를 마친 직후 양사 임직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합병의 당위성과 향후 포부를 밝혔다.

GS리테일 허연수 부회장은 "어느 때보다 경영환경이 불확실하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시기, 두 회사의 사업역량을 한데 모아 더 큰 고객 가치를 만드는 일에 함께 매진하자"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